대상

아버지

강희숙



그림 · 박구원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옛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높은 지붕 위에 서서 페인트칠을 하던 모습, 무거운 짐을 나르던 모습, 사시사철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모습, 까맣게 탄 얼굴,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고 남아있던 손톱과 손등의 페인트 흔적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습들이 싫어서 외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식들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였지요. 그 때는 일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입학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시원치 않았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굳이 학부모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 전체 학부모가 거의 다 상담을 하러 온 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요.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해야 한다고 학교에 오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온대요."

저는 날카로운 말투로 아버지께 쏘아붙였습니다.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괜히 딴 소리가 나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세요. 자식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대학이고 뭐고 안 가면 되니까요."

쾅!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를 써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몹시 초조해하고 있던 저는 제 자신에게 해야 할 화풀이를 아버지께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참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습니다. 교문을 지나 운동장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2층 교실 창문에서 봤습니다. 아버지… 부르려던 제 입을 막은 것은 같은 반 친구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기 봐. 누구야? 누구 아버지야?"

"흑인 아냐? 얼굴이 진짜 까맣다!"

"어디? 어디?"

창가에 몰려 든 같은 반 친구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조잘댔습니다. 쨍쨍한 햇살을 받으며 운동장을 걸어오는 아버지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양복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계셨지요. 항상 봤던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하얀 셔츠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이지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한창이던 때라 그 즈음에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제 부모가 보이면 창가로 달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아니 친구들의 수군대는 말을 들은 순간, 창가에서 얼른 옆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 손이라도 흔들까봐서요.

교무실 창문으로 담임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온 음료수를 선생님께 건네셨지요. 하얀 페인트가 점점이 묻은 아버지의 까만 손. 저는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오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차라리 오지 말든가, 올 거면 손이라도 좀 씻고 오지.'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온 친구들의 아버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려던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교실로 가 버렸습니다. 그 날 학교에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는 아버지를 봤지만 저는 문 뒤에 숨어서 아버지가 교문을 나설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면서 일했던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저희 자식들은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딱 일 년만 살다가 죽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겠느냐, 1억을 받겠느냐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이루겠다, 하더군요. 내 인생이 일 년밖에 안 남았다면 세상에 내 이름 석 자 남기고 죽고 싶다, 하고 싶은 것 해 보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들의 답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아버지들 대부분은 1억을 받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저는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서 처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돈으로 자식들이 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1억이라도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아버지들의 대답을 듣고 말이지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의 마음자세를 한 치도 갖추지 못한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 년밖에 못 산다면 당연히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속으로 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한 마음보다 제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것을 확인하고 보니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늘 자식이 먼저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누군가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셨겠죠? 주저 없이 돈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 귀한 돈을 말이지요. 돈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말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시라고,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고개만 젓지요. 지금도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아버지. 묵묵히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를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백 권의 책보다 만 마디 격언보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가리라,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리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무슨 말로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아버지의 못난 자식 올림

> 백 권의 책보다 만 마디 격언보다
> 아버지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라는 걸
> 이제야 깨닫습니다.
> 깊은 고마움 다 표현 할 수 없어
> 그저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내 반성문… '아버지처럼 살자' 다짐

수상 소감



강희숙

5월이면 유독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친구뿐만 아니라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때 자신이 했던 그 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겠지요. 이번에 편지를 쓰는 시간들은 오롯이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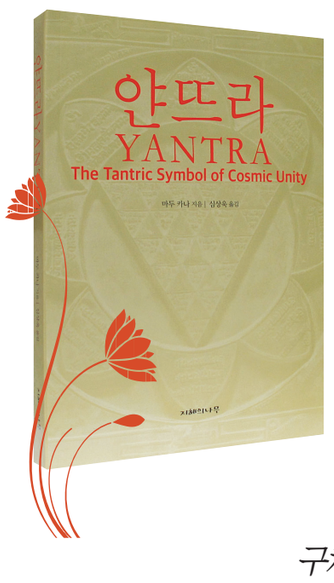
어쩌면 편지란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반성문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쓰는 동안 내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이번에 이 편지도 아버지께 직접 배달이 된다고 했다면 어쩌면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의 그 못된 마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말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편지는 아버지께 전하는 글이 아니라 제 자신의 깊은 반성이 담긴 글이자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각오가 담긴 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밤을 새워 쓴 편지의 수신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대회를 마련해서, 저에게 이토록 큰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현대불교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상을 주신 것에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과 심사위원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안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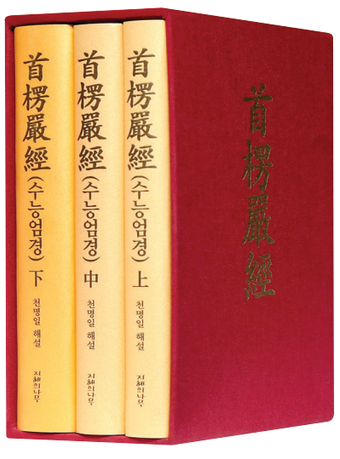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딴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